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 (민 16:41-50)

▶ 삶 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선교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선교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영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고라자손의 반역은 그들이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데서 옵니다.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맡기지 않은 일들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없다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지 이 일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1)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2)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3)비교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4)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인물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정죄와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론은 레위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친히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친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친히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선교사가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그날에 죄의 병이 그쳤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찾아 왔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도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 말씀 나누기

1. 지난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아론을 생각하고, 죽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의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3.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기도하기

1. (말씀 적용)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목장 되도록...
2. (2017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4.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5. 여름 단기선교팀들을 위해 또는 목원 서로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 지도록...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일 507)

보통으로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2. 주모습내 눈에 안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3.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 어짐은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못성도 변화하여

힘 약한 세상을 이길 힘 이 하늘 도부터 임 함이 로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 나 신령의 마음 본 배우 도라
 주 십자가 고난을 이겨 겨 냥 상 다 합께 보며 주 찬 양 하 리

후렴
 주 님의 마 음 본 반 아 살 면 서
 주 님의 마 음 주 님의 마 음 그 마 음 본 반 아 살 면 서

그 거룩 하 십 나 도 이 루 리
 주 님의 그 거룩 하 십 나 도 이 루 리 이 루 리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일 415)

조금 빠르게

1.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어 리
 2. 주 없 이 살 수 없 네 내 내 주 혼 자 는 아 못 서 리
 3. 주 없 이 살 수 없 네 내 내 주 혼 자 는 아 못 서 리
 4. 주 없 이 살 수 없 네 내 내 주 혼 자 는 아 못 서 리

그 힘 내 귀 한 보 배 피 로 날 구 속 하 소 서
 힘 내 의 고 부 족 하 거 머 지 마 구 헤 도 없 소 도 다
 내 의 은 고 길 은 독 간 구 에 내 생 의 명 소 도 원 나
 주 내 주 의 사 랑 으 로 홀 리 신 보 혈 이
 주 주 는 나 나 의 의 생 마 명 도 나 알 아 의 힘 이
 내 내 소 망 나 의 위 로 내 영 광 되 니 다
 내 내 마 의 지 하 여 사 영 광 된 니 다
 내 내 결 에 계 신 주 사 랑 온 케 이 되 니 다
 내 내 마 결 에 계 신 주 사 랑 온 케 이 되 니 다

아 멘